

2027학년도 대입 수능 D-100

새 공부보다 ‘실력 완성’에 집중

전북교육청, 수험생 맞춤형 진학지원 강화

천호성 교육감 “단단한 마음 믿고 걸어가 달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과 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수능을 100일 앞둔 11일 수험생들에게 남은 기간 새로운 공부 방법이나 교재를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취약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EBS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주 틀리는 개념과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성적과 문항별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학습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실제 수능 시간

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면서 영역별 시간 배분 능력과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공부법이나 온라인 강의를 찾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실제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학습이 취약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면서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남은 100일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대입 지원 전략에 따른 수능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은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해 목표 등급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정시모집

을 준비하는 학생은 전 영역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취약 영역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균형 있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 리듬과 건강관리도 수능 준비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늦은 시간까지 무리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기상과 취침, 식사 시간을 서서히 조정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 성취에 대한 불안이나 조급함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학지원도 강화한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과 연계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문상담과 수시

대면집중상담 등 다양한 진학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희망 진로에 맞는 대입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도 이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 교육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능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걸어 나갈 여러 인생의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든 그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날들을 묵묵히 버티며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천 교육감은 또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저와 교육청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파주시 미래교육캠퍼스,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2026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화 감수성 · 리더십 함양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 DMZ 일원 등 찾아

전북지역 학생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 감수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파주시 미래교육캠퍼스,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2026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12명과 전북학생의회 학생의원 30명, 협력교원 등 모두 54명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상반기 의정활동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평화 감수성과 리더십을 높이는 한편 학생자치활동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첫날 학생의원들은 여의도 국회 박물관과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국회의원직의 역할을 모의 체험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기도 미래교육과캠퍼스로 이동해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가 상반기 의정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하반기 의정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국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학생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며 학생들이 직접 학교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탐방한다.

캠프 그리브스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로, 현재 당시 건물과 시설 일부를 보존해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의원들은 DMZ 일원을 직접 둘러보며 분단의 역사를 체험하고 평화와 안보, 환경, 공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키우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뮤지컬 '메드 하터'를 관람하며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의원들이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생자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업무

청렴추진제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에 나섰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1일 본관 2층 강당에서 '2026년 계약업무 청렴추진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반부패 활동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렴 추진제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해 계약 분야의 부패 유발 요인을 없애고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1인 1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계약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 계약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역사지 체임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업무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계약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기전대, ISO 50001

에너지경영 전문인재 양성

전주기전대학이 친환경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경영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다.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은 에너지 기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 및 국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과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이 주최하고 글로벌 시험·검사·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KIT)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했다.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 교육생 모집과 취업 연계 지원에 힘을 보탰다.

교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전주기전대학 재학생 5명과 전북지역 구직자 2명,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재직자 9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1일 오전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장소 가운데 하나인 전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응시생들과 시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간 쏟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천호성 교육감, 검정고시 응시생 등 격려

전주 · 익산 등 전북 6개 권역서 1160명 응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당부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11일 오전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장소 가운데 하나인 전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응시생들과 시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천 교육감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응시생들에게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값

진 도전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그동안 쏟은 노력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후회 없는 도전을 펼쳐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험 진행 관계자들에게는 응시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4개 대학과 ‘슬로시티 · 구도심 활성화’ 공동 프로그램 추진

리빙랩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우석대학교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학 간 리빙랩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초광역 공동사업 발굴에 나섰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은 최근 호텔마리나베이 서울에서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세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RISE사업 리빙랩 초광역 협력체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별 리빙랩 운영 경험과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빙랩은 지역 주민과 대학, 기관 등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인적·기술적 역량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대학은 앞으로 △리빙랩 운영 상호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초광역 공동 프로그램

천 교육감은 “응시생들의 오랜 땀방울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모든 응시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정고시는 전주를 비롯해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 도내 6개 권역에서 실시됐다.

이번 제2회 검정고시에는 모두 1,160명이 지원했다. 학교급별로는 초졸 42명, 중졸 164명, 고졸 954명이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발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간 연계·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대학이 보유한 지역별 자원과 경험을 공유해 개별 지역 단위의 문제 해결을 넘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개 대학은 초광역 공동 의제로 '슬로시티와 구도심 활성화'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라대학교에서 후속 협의회를 열고 공동 프로그램의 세부 의제와 대학별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이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미래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제1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에서 도내 학생들이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6명 등 모두 9명이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초등부 학교 홍보영상 제작, 중·고등부 아이디어 기획, 일반부 아이디어 기획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등부 AI 활용 학교 홍보영상 분야가 새롭게 신설됐다.

전국에서 모두 1,888팀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153팀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초등부에서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이, 중등부에서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3팀이 각각 수상하며 총 9팀이 이름을 올렸다.

초등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전주 초포초등학교 박로운 학생의 '위플래너와 함께 크는 꿈-전주초포초'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플래너를 소재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교생활을 소개한 작품으로, 학교의 특징과 학생들이 생활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 최우수상은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에서 대상을 수상받은 전주초포초 박로운.

교 최시아 학생의 '같이 가자, 전주서신초등학교는 이렇게 즐거워'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낮설게 느껴졌던 학교가 익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학생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상징적인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 우수상에는 아리모현초등학교, 전주한빛초등학교, 전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중·고등부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도 전북 학생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전라고등학교 조찬희 학생의 '공공 API 실시간 연계 로컬 LLM 기반 고교생 진로 교과·독서 설계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공공 API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로컬 소용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고교생에게 진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것으로, 진로 지도에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고등부 우수상에는 상산고등학교와 영선중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오상근 기자